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2018. 8
Vol. 520



CONTENTS

2018. 8 Vol. 520



08



12

SECTION 1 미래로 가는 길

- 04 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 08 가재 미래로
- 12 청년 서포터

SECTION 2 목표를 얻는 길

- 16 능력개발 길잡이
- 20 미래 유망 직종
- 24 명인을 만나다



20

SECTION 3 변화가 시작되는 길

- 28 Work & Life Balance
- 32 청춘불패
- 36 상생을 꿈꾸다



28

SECTION 6 여유를 찾는 길

- 70 이달의 청백리
- 72 건강 100세
- 74 한국의 맛
- 76 상식사전
- 78 길 위의 사색
- 82 모엘 마당



78

SECTION 5 희망을 노래하는 길

- 52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
- 56 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 58 노동법 길잡이
- 60 모엘 뉴스
- 66 알기 쉬운 정책
- 68 내일 카툰



52

SECTION 4 꿈을 함께 하는 길

- 40 함께 하는 세상
- 44 나누고 더하면 행복
- 48 드림 프로젝트



40



44

고용노동부 소식지 8월호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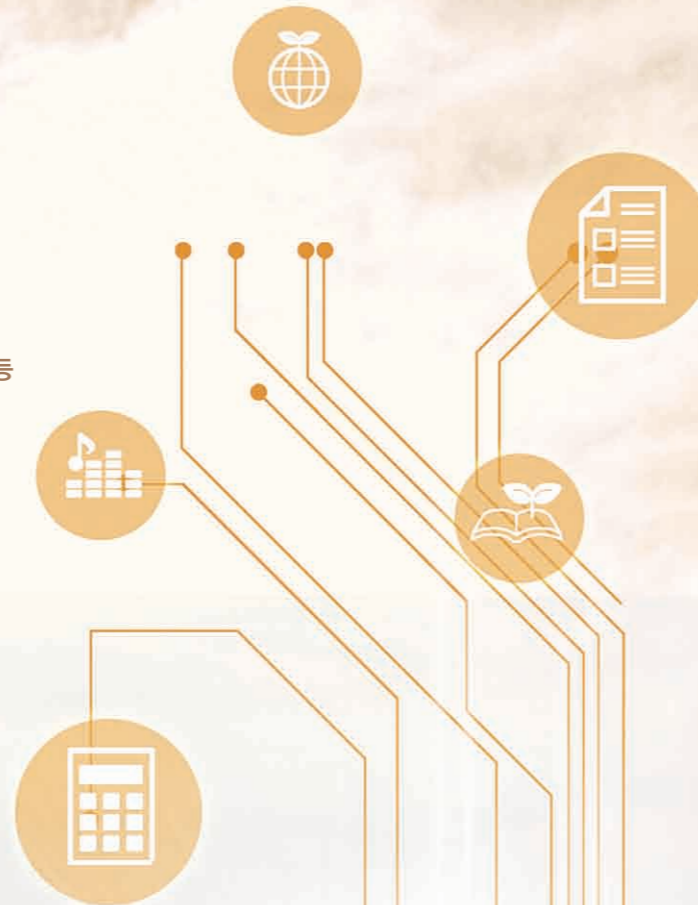
통권 제520호
 등록번호 강남 라00389
 발행일 2018년 8월 3일
 발행인 김영주
 발행처 고용노동부
 편집위원장 이현수(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기획·편집·디자인 하나로에드컴
 인쇄·발송 애드그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취업 준비

대학일자리센터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7년 68.9%(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3년까지 7~8%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2017년 말 9.8%(43만 명)까지 오르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정부 아젠다로 설정될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학들도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글 노혜진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지원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죠. 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사회에 배출되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의 취업률이 대학평가 지표로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은 진로 및 취업 지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실제 2014년 대학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 교비의 약 0.93%에 불과하고 학생들도 졸업에 임박해서야 취업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원스톱 통합고용서비스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대학일자리센터가 그것인데요, 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저학년부터 전공과 적성을 고려하여 조기 진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학년별 맞춤형 진로지도, 종합경력관리 지원 등 체계적으로 취업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장과 연계하여 집중 취업 지도를 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사례〉

- (건국대)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기존 취·창업 부서를 대학일자리센터로 통합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확충(총 670㎡ 규모)
- (영산대) 대학 재학 중 지속적으로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전체 학기(8학기)별 전공필수 진로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시간 중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로설계, 기업 정보 탐색, 응시서류 작성 등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형 사업의 확대로 더 많은 기회 제공

2015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61개 대학 중 전문대학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전문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신설된 소형 사업은 전문대학이나, 재학생 수 5,000명 내외, 지역·대학 특성상 일자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으로 선정했는데, 전문대학과 소규모 대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형 사업의 확대로 인해 전문대학이나 지방의 소규모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밝은 내일을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 주요 일자리사업을 홍보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대학 재학생이 아닌 특성화고 졸업 예정 학생, 인근 지역 청년들에게도 진로·취업 상담·특강, 경력개발컨설팅, 정책 안내 등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취·창업 중심 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들이 좀 더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30개교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추가 선정 30개교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20개교(66.7%), 소규모 대학 및 전문대학은 22개교(73.3%)로 지방 소재 소규모 대학과 전문대 재학생에 대한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확대 될 전망입니다.

어떤가요? 대학일자리센터의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들에게 밝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0대에 만나게 된 새 직업, 직업상담사

김미경 상담사는 원래 학원강사였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던 그녀에게 경제상황으로 인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은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미경 상담사는 프로그래머, 학원강사, 콜센터 상담직 등 여러 가지 일을 거쳤다고 하는데, 많은 직업을 거치면서 오히려 나만의 무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있는 YWCA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죠.”

그곳에서 김미경 상담사는 직업상담사라는 일을 알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자신이라면 직업을 못 찾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나만의 무기를 찾아 주는 취업 해결사

(주)한국커리어잡스 김미경 상담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물론 이직 혹은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장년층도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한국커리어잡스의 김미경 상담사는 이러한 구직자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나만의 무기를 찾아 주어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 사례 공유 컨퍼런스에서 대상 수상자인 김미경 상담사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서류 탈락으로 잃었던 자신감

김미경 상담사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비결로 '많은 서류 탈락'을 꼽기도 했습니다.

“40살이 넘어서 일을 찾으려고 하니 서류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죠. 다행히 고용센터의 기간제 일 자리에 합격해서 11개월을 일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시 알게 된 고용센터 직원들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센터 직원들과 소통하며 지내다 보니 자신이 보유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김미경 상담사는 상담사 분야로 취업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주)한국커리어잡스에 입사하게 되죠.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

김미경 상담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물어보니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이 없고 사람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집안 일을 전담하며 부모님의 스트레스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분이었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분께 자신감을 심어 드리고 싶었죠.”

김미경 상담사가 관한 취업희망 프로그램에서 남들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이 여성은 이후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취업상담사가 아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언니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김미경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분은 자신의 꿈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취업에도 성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참여자 100% 취업이 가장 큰 꿈

현재 김미경 상담사는 90여 명의 구직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이분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취업성공패키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 짜여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줄 때 길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김미경 상담사는 구직자에게 전담자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나를 위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구직을 할 때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기에 구직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는 김미경 상담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미경 상담사는 나중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봐 주는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도전하면 기회는 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구직자 모두 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뿌리산업을 책임지는 젊은 회사

(주)미래써모텍

뿌리산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소재를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이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를 일컫는데요, 대구에 위치한 (주)미래써모텍은 이러한 뿌리산업 중 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대구 토박이 기업 (주)미래써모텍

(주)미래써모텍은 대구 성서공단 안에 위치한 회사로 배진범 대표가 2000년에 창립했습니다. 배진범 대표는 금속과를 졸업하고 금속 재료로 대학원까지 나온 금속 관련 전문가인데요,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을 살려 (주)미래써모텍을 탄생시켰죠.

“저희 회사는 열처리와 박막코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배진범 대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 등이 없을 때였기에 힘들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2004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세우고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 기업

(주)미래써모텍은 창립 이래 18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금융 위기 당시 유럽에서 장비 수입을 추진했을 때는 환율이 크게 올라 고비를 맞기도 했다고 해요.

“계약금으로 장비 금액의 40%를 지급했는데요, 환율이 너무 오른 거예요. 계약금보다 금액이 더 오른다면 수입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다행히 계약금보다는 오르지 않아서 수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장비 덕분에 (주)미래써모텍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 기술은 있었지만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기계의 성능이 부족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오면서 장비를 자체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었죠.

“지금 현재 저희는 일본 2개 기업과 중국 공장에 장비를 수출했어요. 열처리와 박막코팅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로 인해 생산되는 제품의 5%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주)미래써모텍이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기술의 성장'입니다. 평균 연령 30대 중반의 젊은 기업인 (주)미래써모텍은 해외 기업과 일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해외 연수, 해외 출장의 기회를 통해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중 일본 거래처는 글로벌 기업으로 태국이나 멕시코에 출장을 가기도 하죠. 직원들이 외국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지방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

배진범 대표는 열처리 기술 분야를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로 말했는데요,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리학,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과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는 배진범 대표. 세계 1등을 목표로 아직까지도 쉽지가 않겠지만 그의 말에 청년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욱 크게 뻗어나갈 (주)미래써모텍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미래 변화의 가속화, 더 많은 인재의 필요에 걸맞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과정 및 훈련기관 추가 선정

다가올 미래가 아닌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와 삶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들조차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죠. 하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하는 듯합니다. 이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도 인력 양성과정과 훈련기관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변화로 인한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글 강속희

충분한 준비, 하지만 전망은 달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속련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14개 훈련기관에 24개 훈련과정을 선정해 600여 명을 선발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요. 더불어 지난해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한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결과 발표에서 나온 내용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죠.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2030년에는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가 92만 여 개,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여 개로, 총 170여 만 명의 고용 변화가 예측된 겁니다. 이는 지난해에 전망한 것보다 신규 일자리의 경우 10만여 개나 증가한 수치라, 그만큼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나타낸 결과랍니다.

새로운 전망에 따른 대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에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과정에 추가로 참여할 12개의 훈련기관과 20개의 훈련과정을 새로 선정했지요. 기존 7개 기관을 포함해 신규 기관 5곳까지 합쳐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한양대, 수원대, 멀티캠퍼스 등이며, 정보보안과 스마트 제조 등 6개 분야, 20개 훈련과정에서 500여 명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 역시 인력 수요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정보통신 전문가, 공학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이 특히나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2018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추가 양성과정〉

분야	훈련기관	훈련과정
빅데이터	멀티캠퍼스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예측 모델 분석 전문가
		지능형 IoT 붓을 활용한 빅데이터 개발 전문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빅데이터 전문가
	한양대학교	IoT 활용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한국생산성본부	머신러닝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 전문가 양성(NCS)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개발 전문가 양성(NCS)
		인공지능 센서를 활용한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전문가 양성(NCS)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금융·디지털마케팅 중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SW 전문가(NCS)	
IoT	멀티캠퍼스	자율주행을 활용한 지능형 IoT 개발 전문가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스마트그리드 기반 IoT 융합 SW 전문가(NCS)
스마트제조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초연결 플랫폼 기반 스마트공장 MES 개발 엔지니어 양성(NCS)
	수원대학교	스마트공장 운영 기술 과정(FESTO가 적용된 스마트 제조 구현)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실무
실감형콘텐츠	비트교육센터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AR/VR 전문가
	수원대학교	VR-AR BIM
	영우글로벌리닝 평생교육원	3D 개발 엔진을 활용한 VR·AR 게임 콘텐츠 전문가 양성(NCS)
정보보안	KH정보교육원 당산지원	지능형 IoT 플랫폼 취약점 분석 및 해킹/보안 전문가 양성
	한국생산성본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NCS)
핀테크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빅데이터 핀테크

비이공계 졸업자도 환영, 취업까지 이어진다

각 훈련기관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자라면, 비이공계 졸업자까지 포함해 선정하고요.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매월 20만~40여 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며, 훈련을 이수하면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 지원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빠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돼요.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과정은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라 훈련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며, 충분한 시설과 전문성 높은 강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훈련의 질

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민간에 맡기는 이유도 그러한 효과를 고려한 곳이고요. 더불어 현장의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 2019년도에도 이어진다

준비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2019년도에 또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큰 맥락 아래서 작은 변화를 챙기는 철저함으로 준비하는 미래라 그런지,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네요.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사물과 사물

사물인터넷 전문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때맞춰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고, 영양제를 주는 일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애꽃은 화초만 죽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런데 화초가 알아서 물을 공급받고, 햇빛이 강하면 그늘 뒤로 숨었다가, 영양제가 필요하면 주인에게 알림까지 보낸다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물인터넷** 덕분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기계가 사람의 편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개입이 있어야 했는데, 사물인터넷은 사물이 저장해 놓은 자료를 분석하여 사람에게 편리한 쪽으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사물인터넷협회의 박원근 부장에게 사물인터넷의 정의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물인터넷은 IoT라고 해요. Internet of Things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요, 사물과 사물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IoT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ICAM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IoT · Cloud · Bigdata · AI · Mobile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 놓고 AI 기술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활용을 시작한 분야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홈 분야입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았거나 외출 시 현관문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약을 먹을 때나 상태를 점검하여 미리 경고를 하거나 의사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도심의 주요 혼잡 지역인 종로구 북촌 및 서대문구 일대에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적재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환경미화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것인데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에도 사물인터넷을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일이 가장 크고 당도도 높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 햇빛 등을 조절하는 것이죠. 농부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과일의 생육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량의 보수가 필요할 때를 알려 주거나 선박의 무게중심이 틀어지지 않게 기계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죠.”



젊은 층의 도전이 필요한 융합 신기술 분야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응용하는 융합 신기술 분야입니다. 박원근 부장은 이 때문에 ‘기획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융합이란 기존에 있던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분야죠. 기존의 기술을 접목하여 어떻게 선보일 것인가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식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호기심이 많은 젊은 층의 도전이 필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역시 개인정보 측면이겠죠.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연 23%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서 파악한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채용 인원 규모만 4,000명에 달합니다. 대기업이나 제조업군에서의 IoT 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니 채용 규모만 해도 상당하죠.”

박원근 부장은 사물인터넷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ICT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사업 기획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기계가 알아서 해 주는 세상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인간을 어디까지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를 꿈꾸다

엑스론코리아(주) 김진일 대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세계 최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맡으면 꾸준히 그 일에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5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엑스론코리아(주)의 김진일 대표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엑스론코리아(주)는 초정밀 고속가공기와 방전가공기, 레이저가공기, 흑연, 글라스 전용 가공기 투헤드 방전기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고객맞춤형 설비 제작과 교육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Q 이달의 기능한국인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먼저 방전가공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A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곳이 방전가공기 제작 업체였습니다. 신생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서와 장비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본과 유럽에서 수입만 해서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방전가공기를 개발했죠. 당시 물어보고 배우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이 일을 하게 됐어요.

Q 엑스론코리아(주)는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나요?

A 첫 회사에서 11년을 근무했어요. 당시에 IMF 끝무렵이었기에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였거든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 때문인지 회사에서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았죠. 고민을 하다가 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Q 창업하고 난 후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A 적은 돈으로 시작했기에 사무실을 얻는 것이 힘들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직원 1명과 함께 설치돼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년이 지나면서 조그마한 공장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 뒤로 점점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기술 개발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는 엑스론코리아(주)의 특징을 꼽는다면요?

A 정밀도를 최대한 높은 기계를 선보입니다. 떨림이 없고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폴리머 콘크리트라는 돌을 이용하여 기계를 제작하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는 아니지만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죠. 저희 장비는 외국과 견주어도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Q 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A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기술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독일 기술자를 채용하면서 독일 엔지니어를 초청하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던 엔지니어들이 점차 친해지면서 오랜 기간 축적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 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 대표님은 엑스론코리아(주)를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A 작지만 탄탄한 회사, 직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예요. 회사에 애정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도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급여 지급과 야근 없는 문화, 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엑스론코리아(주)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부채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좋은 기계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가 만들어 내는 행복한 회사생활

(주)씨알푸드

바쁜 아침 시간, 아침 식사 대신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리얼이 출시된 이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시리얼은 없었는데, 우리 몸에 맞는 시리얼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회사가 바로 (주)씨알푸드입니다. 건강한 시리얼 속에 직원들의 행복한 미래도 담은 회사로 2017년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국산 시리얼 제조 회사 (주)씨알푸드

물 맑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주)씨알푸드는 자연 곡물 그 대로의 영양을 담고 있는 시리얼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07년 법인 설립 후 2008년 공장을 완공하고 2009년에 시리얼 생산을 시작했죠. 경영기획부 김진식 부장은 (주)씨알푸드를 '직원들을 생각하는 오너의 마인드가 깨어 있는 회사'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씨알푸드 이상범 대표이사님은 원래 벤처캐피탈리스트 출신으로 (주)씨알푸드를 설립하게 됐죠." 당시까지만 해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시리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당도를 낮추고 우리 쌀, 국내산 천일염으로 만든 국산 쌀 시리얼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는 식사 대용인 시리얼 바에도 주목하여 공장을 증축하고 바 생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복지

씨알은 순우리말로 '종자'를 뜻합니다. 하나의 씨알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씨알푸드 역시 한 명 한 명의 직원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전체 직원 수가 85명으로 많지는 않다 보니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복지가 가능했습니다. 먼저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자녀 학자금도 지원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2년간 매달 10만 원의 분유 값도 지원합니다. 월급날이면 작은 이벤트 형식으로 치킨이나 피자 쿠폰을 보내 주어 가족끼리 작은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죠.”

또한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생일을 맞이한 직원은 가족 식사를 위한 복지 포인트 5만 점을 주고, 휴가 때는 20만 포인트를 주어 직원들이 더욱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원들이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전일제 근무와 정시 출근이 어려운 직원을 배려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0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

㈜씨알푸드는 8월에 연구소를 서울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미 문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고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전 2020년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매출 500억 원 달성,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인상이라는 모든 직원들이 바라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비전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론, 내일채움공제와 행복결혼공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복지를 고민하다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가 되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52시간 제도도 미리 앞당겨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성장의 밑바탕에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씨알푸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씨알푸드는 앞으로도 더 행복한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직원과 함께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는 ㈜씨알푸드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INI INTERVIEW

육아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준 회사

인사총무팀 송영지 대리



저는 2008년 창립 멤버로 입사하여 올해 10년간 근무한 인사총무팀의 송영지 대리입니다. 입사 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오 난 후 복직을 하는 게 어땠겠냐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했음에도 아이가 너무

어려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서 육아문제도 해결되고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진심으로 직원을 배려하죠. 이렇게 바로 진정한 워라밸이 아닌가 싶네요!

삶의 여유를 찾게 해 준 시간선택제

인사총무팀 김진희 주임



저는 2016년 입사하여 2년 정도 근무한 인사총무팀의 김진희 주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 아이가 둘 있는데요, 입사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손이 많이 가게 되었거든요. 맞벌이 가정이라 방과후 아이를 돌보는 문제도 큰 고민이었고

요! 그런데 부장님이 저에게 시간선택제를 권유해 주셨죠. 현재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아이를 돌보는 문제도 해결되어서 회사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기 마케팅 선도기업, 중장년 채용으로 도약하다

(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는 '향기가 고객을 불러온다.'라는 생각 아래 독특한 향기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향기 마케팅을 선도한 기업입니다. 에스콰이어, 배스킨라빈스 등 각 매장 성격에 맞는 향기 마케팅을 돕고 있는데요, 120가지의 향기 제품을 생산 및 취급하고 있는 이 회사에도 인력난은 큰 문제였습니다.

자료 제공 노사발전재단



1995년 창립된 작지만 강한 기업

(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이하 바이오미스트)는 환경에 무해한 화학 성분 살충제가 아닌 천연 살충제에 주목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자금이 달리는 중소기업의 한계를 대기업이 넘보지 않을 아이템으로 특화시켜 사업으로 확장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998년 초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기록물·문화재 소독장비·약제의 국산화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사업이기에 제안을 받은 대기업은 거절을 하고 바이오미스트만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이오미스트의 최영남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돈보다 의미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개발에 나선 바이오미스트는 2000년 세계 최초로 허브정유를 이용한 기록물·문화재 소독장비를 개발한 가운데 2007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친환경 소독장비인 '바이오마스터'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제품은 우수성을 인정 받아 일본, 말레이시아, 오만에도 수출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오미스트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세월호 유품과 416기억저장소의 소독과 보존 작업도 함께 하고 있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천후 인재가 필요한 기업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바이오미스트의 직원은 10여 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인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전천후가 가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처럼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어서 동료들과 유대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최영남 전무이사는 대기업처럼 연봉이 세지 않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직원들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직원이어야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음에 맞는 직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대를 걸어본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재가 필요했던 바이오미스트가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이하 서울희망센터)에 기대를 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까지 뵈음에도 채용까지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구직자들이 일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면접을 마치 의무감 때문에 온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시다.”

몇 년 후 생산기술팀에 결원이 생기면서 다시 서울희망센터에 구인신청을 의뢰할 때도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기 때문입니다.

“기우였어요. 담당자인 황영희 수석 컨설턴트가 정말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회사를 여러 번 방문해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바이오미스트에 적합한 구직자들을 추려서 이력서를 보내 왔죠. 면접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 면접 당일에도 함께 와서 구직자를 챙겼어요.”

그런 황영희 수석 컨설턴트의 노력 덕분일까, 바이오미스트는 면접자 중 최윤경 씨와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성실해 보이는 인상과 전기파트 일 경험이 있는 인재였습니다.

서울희망센터와 꾸준히 협력할 것

4월에 입사한 최윤경 씨는 꾸준히 바이오미스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미스트는 기존 향기 마케팅을 업그레이드할 제품을 준비 중입니다. 화장실 변기나 베개, 교복, 아기 장난감 등에 있는 세균을 없애면서 향기를 더하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친환경 소독장비의 해외 진출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 앞으로도 서울희망센터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할 생각입니다.”

희망을 찾아준 서울희망센터 최윤경 / 기술팀 생산·출입고 담당

저는 현재 기술팀에서 생산과 출입고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경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무척 떨렸는데, 황영희 수석 컨설턴트님이 면접 때 함께 하면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보충 설명해 주고 취업 후에도 회사로 찾아와 어려운 부분은 없나 살펴 주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낯선 곳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영남 전무이사님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셔서 더욱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퇴사 생각도 사라졌어요. 회사가 집과 가깝고 예전에 시설관리할 때는 교대근무로 야간 당직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5일 주간에만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2018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하는 등 상생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8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임남진



올해 처음 개최된 사회적경제 통합 행사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하나만 생각하기 쉽지만,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다른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농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행사는 부처별로 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2018 사회적경제박람회의 특징은 이러한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연 첫 번째 행사라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3개 부처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 개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통합된 사회적경제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전국 한마당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민관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었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만족 UP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A 함께 누리고 즐거운 삶, B 내일을 여는 청년, C 패셔니스타, D 비즈니스 마켓, E 더 건강한 먹거리, F SE 지구를 부탁해, G 웰빙라이프로 구성된 345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 했는데요, 정책홍보관과 대구광역시관으로 구성된 특별관에는 사회적경제 제도 소개와 함께 각 부처 별 하는 일과 대구시의 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참여 기업을 위한 해외 진출, 금융, 유통분야 관련 상담 관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학술행사 및 정책설명회, 경진대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발표대회, 사회적기업 및 청년 협동조합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청년을 위한 경진대회, 시민참여를 위한 어린이 사회적경제 사진촬영대회, 사회적경제 대구 투어,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국무총리가 참석한 기념행사도 열려

박람회 둘째 날인 토요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장·차관 및 대구시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대표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는데요, 동탑산업훈장에는 (주)클러스터 지원그룹의 진경희 대표이사, 산업포장에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순원 상임대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창수 대표, (사)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 (주)미향 주거복지 양의열 대표가 수상했으며 대통령 단체 표창으로는 (재)아름다운 가게, 국무총리 단체 표창으로는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사회적경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장경제는 강자가 이기는 주의로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없앤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여러 계층의 힘을 모으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기여하는 흐름에 정부가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제품

언뜻 복잡해 보이는 코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화시켜 초등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늘리는 (주)비피, 아이들의 보행과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노란 발자국을 선보인 (주)페브릭아이디, 에이즈 환자와 비환자가 같이 카페를 운영하는 Big Hands, 사무실의 폐지를 재활용하여 씨앗을 품은 카드로 만들어 판매하는 종이정원, 어르신들이 수집한 풀과 재배한 잡곡으로 디퓨저·프리즈브, 식품을 만드는 선거마을까지 다양한 소재와 의미 있는 기업 활동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주)케이앤아츠

국악이 된 노래와 가요의 만남

지난 7월 6일 여의도의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오프닝 무대를 책임진 이들은 바로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는 **퓨전 국악팀 '비단'**이었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국악에 눈을 돌린 대중음악 전문가

(주)케이앤아츠 김기범 대표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컴퓨터음악과 음향교육을 따로 받아 1997년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음반 제작 업무를 맡게 됩니다. 2004년, 그는 화려한 대중음악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에 들어가 O.S.T 작업에 참여하죠. 그 후 자신의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던 그는 국악에 눈을 돌려 퓨전 국악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퓨전 국악으로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이 아닌 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짧은 시간 관객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 음악의 퀄리티보다는 비주얼로 승부를 하는 거였죠. 몇 년을 근무하면서 많은 곳에서 공연을 했지만 국악도 대중문화처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젊은 국악인의 미래를 생각하여 설립한 (주)케이앤아츠

“매년 750여 명의 국악전공자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젊은 국악인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매달 고정 급여를 주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비단이라는 그룹명은 예전에 돈보다 귀한 취급을 받던 비단처럼 우리도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뜻과 비단결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자는 뜻을 동시에 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년에 12번의 공연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5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2013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담도 덜게 됐죠. 올해 3월에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주)케이앤아츠에는 스태프, 가요금 연주자 등 5명의 정규직이 활동 중인데요, 현재 대학교 4학년인 2명의 학생도 학교를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단의 독특한 콘셉트를 탄생시킨 창덕궁 후원

김기범 대표는 국악을 좀 더 심도 깊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립국악원 아카데미에서 국악 관련 강의를 듣게 됩니다. “다양한 국악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덕궁 견학을 가게 됐는데, 조선시대 정원의 아름다움이 집약된 후원을 보게 됐죠. 이 절경에서 국악 공연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대와 조명 설치, 객석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찍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영상과 퓨전 국악을 접목한 비단의 독특한 콘셉트는 이때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비단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직접 알리고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공연 전에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약계층을 돕고 더 넓은 세상에 국악을 알리기 위해

비단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한식, 춘향전, 심청전 등을 주제로 미니 다큐멘터리와 수록곡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9개 언어로 제작한 총 126편의 문화유산 다큐멘터리와 비단의 뮤직비디오를 QR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취약계층에게도 좋은 문화를 전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세종과 지화 춤을 추다’라는 공연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시각장애가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춤추는 헬렌켈러’라는 시각장애인 명상무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과 협의하여 공연을 진행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시작한 이 공연은 작년 12번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올해도 또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산 선배 이민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후배에게 얘기를 들려 주는 참여형 공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앤아츠는 회사가 점점 확장되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주 비단팀을 추가로 구성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주)케이앤아츠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젊은 국악인들의 설 자리는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채용의 모범적인 해답을 제시하다

(주)나눔누리

(주)나눔누리는 LG디스플레이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LG그룹 최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역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로 2018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나눔누리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주)나눔누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주)나눔누리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LG디스플레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장애인 직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LG디스플레이 내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직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좀 더 확대하자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LG디스플레이는 다시 장애인 고용을 검토하게 되었고, LG디스플레이에서는 이 기회에 생각을 전환했다고 해요.

“LG디스플레이 내에서 장애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서비스를 장애인 고용을 통해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 거죠.”

당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 서비스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과 제조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마사지 서비스 제공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 보자’가 탄생시킨 다양한 일자리

이철순 대표이사의 말에 의하면 (주)나눔누리도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식 교육을 진행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사업 시행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장애인이 청소를 하고, 장애인이 주는 커피를 마시는 일이 편견 없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그 때문에 초기에는 청소는 한 분만, 카페도 한 곳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은 현재는 청소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카페는 9곳을 오픈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원 서비스 차원에서 세차도 기획했어요. 일반 물 세차는 시설이 복잡하니까 스팀 세차를 고려했고, 가격은 시중의 절반으로 책정했죠.”

현재 (주)나눔누리는 카페, 헬스키퍼, 스팀 세차, 환경미화외의 4개 직종,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579명 가운데 294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주)나눔누리가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주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중증장애인은 8시간 풀 근무가 어려우니 1개의 일자리를 2개로 나누고 4시간 근무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5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죠.”



스팀 세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지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직원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의 힘든 점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및 연극 관람, 박물관 견학을 비롯하여 올해는 야구 관람도 진행했다고 해요. “올해 야구 관람은 LG디스플레이의 직원과 (주)나눔누리의 직원이 11로 짝을 이루어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복지를 위해

(주)나눔누리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 작년부터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복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직원을 700명으로 늘릴 생각이예요. 저희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좀 더 많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더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이철순 대표이사. 그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의 말처럼 장애인들도 원하는 직장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과 행복을 만드는 DNA



대원제약

대중들에게는 배우 이유리가 감기약을 짜 먹는 광고로 알려져 있는 '콜대원' 제조회사, 대원제약. 하지만 이번에는 약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알리는 대원제약의 직원들,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 강숙희 사진 이지수



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사명

1968년 창업해 올해로 의미 있는 60주년을 맞은 대원제약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제도 개선,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등을 종합해 정부에서 내리는 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했지요.

기본적으로 대원제약은 연 2회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최근 사업이 더 성장하면서 지난 5년간 63%의 인력 증원이 있었답니다. 올해도 이미 지난 3월에 채용을 진행했고, 9월에도 30~5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요.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능력 발휘를 고려해 여직원도 매년 확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원 중 30%를 차지하고 있죠. 더불어 고졸 사원 채용 규모도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놀라운 건 거의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고, 900여 명의 직원 중 20명 정도만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역시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 해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매우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환경은 '기업이 공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관과 '약이 없어 고통 받는 환자를 구하라'는 창업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업의 근본적 DNA에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좋은 제도들 역시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시행된 것이 아니라 MF, 금융위기, 일괄 약가 인하 같은 위기 때도 구조조정조차 없었을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늘 한결같았지요.



입사의 기쁨, 입사 후의 행복

그럼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의 입사 후는 어떨까요? 우선 신입사원부터 리더까지 체계적인 육성계획에 따라 교육은 물론 자율학습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또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사내동호회를 지원하며, 임직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학자금 지원은 물론 다자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도 지원합니다. 실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 빈도는 높은 편이며, 복직하는 직원들도 상당수랍니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또 내부 복지시설로는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과 모유수유실이 마련돼 있고, 쾌적한 분위기의 복카페에선 휴식을 취하고 티타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지, 사내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들조차 같은 직원이라는 유대감에 선뜻 먼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배려와 실천에 담긴 진심

여기에 더해 매년 임직원 의식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나 회사생활에 관한 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행복일터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다고 해요. 육아나 자기계발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출퇴근시간 조정은 물론 리프레시 휴가도 도입한 겁니다. 아마도 앞서 언급한 기업관과 창업정신이 직원들에 대한 작은 배려와 실천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900여 임직원들의 생일 때마다 회사 대표인 백승호 회장이 선물은 물론 손편지를 전한다고 하니, 형식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노력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꿀 아름다운 초심

이쯤 되니 이 회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원제약은 일반의약품보다는 전문의약품, 즉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창업정신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익의 창출보다는 실제 도움이 되는 약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니까요. 그 노력으로 2007년 당시 국내 신약이 10여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중 하나인 소염진통제 '펠루비'라는 신약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효과 좋은 약은 물론 먹는 사람들의 편의까지 고려해 콜대원처럼 간편하게 휴대하며 물 없이 짜 먹을 수 있는 감기약이라든지, 복용 횟수를 줄이거나 정제 크기를 축소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도 개발하고 있지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세상에 기여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대원제약이 증명해 내는 듯합니다. 그 아름다운 초심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없는 소통으로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회사

에이치엔씨네트워크



2007년 오픈한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주 업무는 콜센터 업무입니다.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고 있죠. 이 외에 사무용역을 하는 인원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 최중진 차장은 '큰 수익은 없지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라고 말하기도 했죠.

"인력 관리 업무가 회사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직원들의 업무 환경과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11년 연속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신용등급 A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비씨카드의 콜센터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1년이 된 금융전문 콜센터 회사입니다.

이곳은 직원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회사,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소통을 통한 존중의 문화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최대 장점은 '소통'입니다. 1,00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다니고 있지만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민원실 신성규 팀장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회사의 배려를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있어요. 직원들의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여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하죠.”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콜센터 만족도를 조사하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월례회의 및 직원 만족도 조사, 한마음 가족 산행 등 직원과 함께 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회사측 역시 분기별 1개의 의견은 반드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건의함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정년 없는 회사로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헬스키퍼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서적인 차이를 돕기 위해 카페테리아, 힐링룸, 수면실 등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도입했어요. 2015년부터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경조금 지급 액수도 늘렸죠.”

특히 올해는 상담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와 연계를 통해 개인상담 및 팀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시작한 이 상담 프로그램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개인사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한마음이 되어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신성규 팀장은 감성노동자로 분류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최종진 차장 역시 회사가 법률을 준수하고 직원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육아 등 근무시간 조정을 원하는 직원의 경우 시간선택제를 통해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업무가 많아지면 인력 채용을 통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죠.”

불합리한 노사문화가 없는 기업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이곳이 우수한 노사문화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는 것은 직원과 회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나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에이치엔씨네트워크를 응원합니다.

MINI INTERVIEW

IT 기반의 아웃소싱 회사로 발전시킬 계획 에이치엔씨네트워크 **마호웅**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에이치엔씨네트워크에 대표이사로 부임한 마호웅입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33년을 근무했는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이 저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져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직원들이 흠어져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가감 없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관례 또는 의무가 아니라 진솔한 의견들이 나오기에 저 역시 직원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를 앞으로 IT 기반의 아웃소싱 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인데, 업무를 하며 직원들이 불편했던 점을 반영하여 단순 업무는 AI를 통해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직원들은 고부가가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식 사고, 위험성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오수·폐수·우수용 맨홀 등 밀폐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도움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식 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 '밀폐공간'이란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정화조, 집수조, 피트, 오·폐수 맨홀, 콘크리트 양생현장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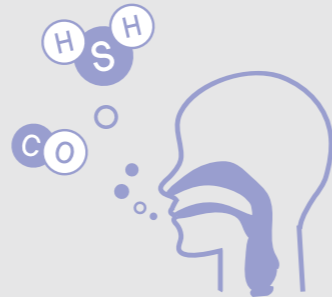


밀폐공간 작업 필수 안전 수칙 3가지!

- 1 위험성을 인지한다!**
밀폐공간은 바로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부 공기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 가스농도측정기를 활용하여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세요.
- 2 환기는 필수이다!**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하세요.
- 3 보호구는 생명이다!**
환기팬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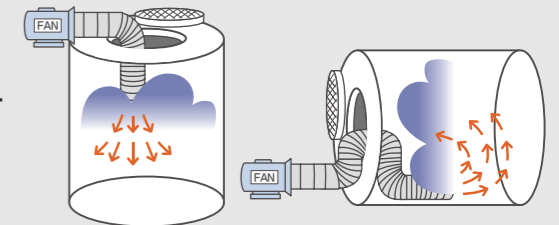
밀폐공간의 위험성 3가지!

- 1 밀폐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 반드시 가스농도측정기를 활용하여 공기 상태를 확인하세요.
- 2 밀폐공간 내 '죽은 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바로 사망**
*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
- 3 죽은 공기를 마시면 손쓸 틈도 없이 바로 사망**



밀폐공간 내부 필수 환기 절차

- 1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는다.**
이때 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0분 이상 공기를 불어넣는다.**
이때 질식 위험 공간의 체적, 구조, 유해가스 발생량, 환기 조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 3 작업자가 작업공간에 들어간 후에도 1대 이상의 송풍기는 계속 틀어 놓아야 한다.**
이때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송풍기의 대수를 늘려야 한다.



추가적인 자료 다운로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금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바쁜 주간에는 60시간까지 일하기도 하는데 이 제도 도입이 적법한 건가요?**

A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는 다양한 환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유동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는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2주 이내의 것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으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 대표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 대표가 아닌 노동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반드시 ①대상 노동자의 범위 ②단위기간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상 노동자에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하는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간에 최장근로시간은 64시간(52+12시간)까지 가능하고,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한 12시간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위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춘 상태에서 특정 주에 6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저희는 주 40시간 평일 근로 사업장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였는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가산수당을 줘야 맞지 않나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동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 5일 40시간제 운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전자로 해석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후자로 해석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행정 해석도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유급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32시간 + 토요일 8시간 = 40시간).

다만,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휴무일’로 봄).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진행되었다. 동탑산업훈장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임규재 안전관리자, 철탑산업훈장은 제주 지역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경림산업(주) 고동린 전무이사, 석탑산업훈장은 보건관리자로서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한 (주)소화아동병원 현숙 보건관리자가 각각 수상하였다. 산업포장은 삼성그룹 최초의 안전담당 임원으로 선임된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유인중 상무와 반도체 직업병 예방에 앞장서 온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김태훈 상무, 서비스업종 산재예방 및 재난안전에 공이 큰 (주)호텔롯데 박익연 안전관리자가 수상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산재예방유공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에게 관심과 동참을 당부” 하면서, 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1회 산업안전보건 날 기념식 개최

지난 7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51회 산업안전보건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1968년부터 시작된 산업안전보건 날 행사는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국회의원 한정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7월 2일은 1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실질적인 첫날로, 사업장 노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퇴근시간을 함께하여 매우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밝은 표정으로 퇴근 준비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나도 오늘 정시 퇴근을 하겠다.”며 직원들과 함께 퇴근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종합점검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 기념 사업장 방문

7월 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화의 본사를 방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정시 퇴근하는 직원들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주)한화는 2018년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 공포 당시 1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비율이 약 20%에 달해 법 시행 준비 중인 사업장이었으나, 신규 채용(36명 채용 완료, 17명 추가 채용 예정), 근무형태 개편 등을 통해 7월 2일 현재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기업이 되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이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7월 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은 협약에 따라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팀 육성과 사회적기업 투자·금융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25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여신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을 위해 475억 원의 비현금성 지원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우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 및 성장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정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의 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18.07.04 / 사회적기업과 남성욱 사무관(044-202-7430)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 중지 등 강력 조치 예고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3℃ 이상의 기온을 보이는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 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 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18.07.18 / 산업보건과 윤현욱 사무관(044-202-774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논의·확정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제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근절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민간기관 내에서 노동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EU 국가들의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7,000억 원(2016년,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고,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 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가했다.

2018.07.18 /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044-202-754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 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 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 인원 7만 2,354명의 92.2%인 6만 6,745명을 전환 결정하였다. 파견·용역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 인원 5만 9,621명의 110.6%인 6만 5,928명을 전환결정하여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 1만 8,992명 중 226개소 1만 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8.07.19 /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고병현 사무관(044-202-7978)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노동 정책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2018.7.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18.6.1.)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2018.6.1.)



임신 및 육아휴직 강화
(2018.5.29.)



**아빠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금 완화**
(2018.7.1.)



노동시간 단축
(2018.7.1. 시행)

장시간 관행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 추구



- 1주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 휴일 포함 52시간 제한
- 18세 미만 노동자 1주 최대 노동시간을 46시간
→40시간으로 단축
-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로 축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18.6.1. 시행)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대



- 지원 업종을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일부 유해업
종 제외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1~3명 고용 시 지원으로 지원방
식 개편
- 지원 금액 1인 기준 667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2018.6.1. 시행)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
을 추가 적립

3년 후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하는 청년이면 가입 가능
-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후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임신 및 육아휴직 강화
(2018.5.29. 시행)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지원(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인
정(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경우도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
- 육아휴직 대상자 계속 근로기간 1년→6개월로 조정
(단,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일 경우 지급)



**아빠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금 완화(2018.7.1. 시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
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노동자
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안



강직한 성품과 두독한 배짱으로 임금의 신임을 얻다 이주국

조선 영·정조 시대에 무신이었던 이주국은 용모가 건장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권세 있고 부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아 명망은 있으나 반목할 때가 많았다. 이에 여러 번 문신에게 횡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흥국영의 실세 후 정조의 신임을 얻었다. 성도·궁성 호위 임무가 주어졌으며 활을 쏠 때의 모습이 추운 겨울에도 잎이 푸른 소나무와 측백나무 같다 하여 정조가 오백이라는 당호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이주국의 상관 구선복에 얽힌 이야기다. 영조 때 훈련대장인 구선복은 임금의 신뢰를 받는 권력자로 콧대가 높고 오만방자했다. 정월을 맞아 구선복에게 세배를 하러 간 이주국은 주안상에 정교하게 사람 모양으로 빚은 떡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구선복은 자신이 호사스럽게 사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인형의 눈알을 찍어 먹는데, 이 모습을 본 이주국은 사람 모양을 한 것을 먹는 구선복을 상대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에게 상소까지 올린다. 이에 화가 난 구선복은 이주국의 벼슬길을 막아 버렸다.

두독한 배짱을 가진 재치 있는 인물

일이 없어진 이주국은 꿩 사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삼척동 뒷산에서 명중시킨 꿩이 어느 대감 집에 떨어진다. 이주국은 그 길로 달려가 자신의 꿩을 달라고 항의를 했고, 하인들이 그를 제지하지 못하자 집주인인 노론의 영수 흥봉한 대감이 나오게 된다. 이주국과 이야기를 나눈 흥봉한 대감은 배짱 좋고 실력 좋은 젊은이에게 벼슬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동생에게 바로 서신을 보내지만,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을 얻는다. 이에 이주국은 물러가기 전에 꿩 값은 받고 가야겠다고 떼를 쓰고 화가 난 흥봉한은 돈을 던지며 이주국의 인사 청탁도 없었던 일로 하라고 화를 낸다.

하지만 흥봉한이 화를 냈다는 것을 안 그의 동생은 부탁을 거절한 자신에게 화를 낸 줄 알고 다음 날 바로 이주국에게 벼슬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된다. 이주국이 다시 인사를 하러 찾아갔을 때 흥봉한은 이주국이 일부러 자신을 도발해 벼슬을 빨리 받는 작전을 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아껴 주었다고 한다.

자신의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품

그가 한강에서 병사들과 함께 진법(陣法)을 익히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옛날 군법에는 군오(軍伍, 군대의 대오)에 늦게 오는 자는 곤장을 때리는 법이 있었다. 그런데 몇몇 병사들이 늦게 왔고 이주국은 군법에 따라 곤장을 때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몸이 약해 곤장을 맞은 후 사망하게 된다. 이주국은 일부러 병사를 죽인 것은 아니나 책임을 통감하고 병사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준 뒤 생계가 어려운 모자를 거두어 집으로 데려왔고 자식의 훈육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문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병사의 아들을 보고 이주국은 죽부인을 이불 속에 넣어 두고 몸을 피한다. 잠시 뒤 아버의 원수를 갚겠다며 병사의 아들이 이불 속에 칼을 찔러 넣었고, 곧이어 방구석에서 나타난 이주국을 목격하게 된다. 자신을 해하려 한 사람이지만, 이주국은 그를 탓하지 않고 칼로 찔러 자식의 도리를 다했으니 나에게 칼을 겨누지 말고 정진하라는 충고를 한다.

이 말에 감응한 병사의 아들은 이주국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홀연히 몸을 감추었다.

여름철 고막천공 조심하세요!

여름철 물놀이가 잦아지면서 고막천공으로 인한 진료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10대 남성의 진료 인원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글 편집실 도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막에 구멍이 생겨 발생하는 고막천공

고막은 외이도와 고실 사이에 위치한 직경 약 9 mm, 두께 0.1 mm 의 얇은 타원형 막으로, 중이에 대한 방어벽이 되고 음파를 진동 시켜 이소골에 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구조에 손상이 생겨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막천공이라고 한다.

외상, 중이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고막천공은 여름철 휴가 시 비행기 탑승이나 물놀이, 스쿠버다이빙을 할 경우 고막 주변의 압력 변화로 인해 천공이 생기는데, 물놀이 후 귀이개나 면봉 사용, 손바닥이나 주먹에 의한 구타 등도 원인이다. 또한 중이염으로 인해 염증이 귀 쪽으로 퍼져서 고막천공이 일어날 수 있다. 고막천공의 증상은 난청, 이충만감, 어지럼증, 이명, 외상성일 경우 통증, 출혈 등이 동반된다.

귀를 무리하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방법

고막천공을 예방하는 것은 귀를 무리하게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물놀이 후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면봉이나 귀이개로 무리하게 깊이 귀를 파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근처에서 조작하다가 부딪혀 의도하지 않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고, 감기가 들었을 때 코를 너무 과도하게 세게 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발살바(Valsalva)법 등을 이용해 고막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의 통증 및 청력 저하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달콤한 맛이 일품인 매력 만점 털복숭이 복숭아

말랑말랑한 과육을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흐르는 달콤한 과즙이 매력적인 과일 '복숭아'. 우리나라는 예부터 미인을 복숭아꽃에 비유할 정도로 복숭아는 그 맛과 향으로 사랑받았다.

정리 편집실 도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국시대부터 재배했던 복숭아

중국에서 시작된 복숭아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재배됐다. 복숭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AD. 102년과 AD. 203년에 이미 복숭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재배 역사가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복숭아가 상품용으로 개발된 것은 1906년 독점에 원예모범장이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미국, 중국,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을 재배 시험을 거쳐 일반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과일

복숭아의 주성분은 수분과 당분인데, 살이 연하고, 수분과 향기가 많아 널리 이용된다. 타타르산· 사과산· 시트르산 등의 유기산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 A와 개미산· 초산· 바레리안산 등의 에스테르와 알코올류· 알데히드류· 펙틴 등도 풍부하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식욕을 돋운다. 발육 불량과 야맹증에 좋으며 장을 부드럽게 하여 변비를 없애고 어혈을 풀어준다. 니코틴 제거에도 탁월하고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아민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 복숭아 크레이프

크레이프 재료 : 밀가루 1/2컵, 설탕 2큰술, 우유 1/2컵, 생크림 3큰술, 달걀 4개, 버터

복숭아 충전재 재료 : 복숭아 3개, 생크림 1컵, 설탕 3큰술

만드는 법

- ① 버터를 제외한 크레이프 재료를 모두 섞은 뒤 체에 내린다.
- ② 예열한 프라이팬에 버터를 한 조각 넣고 키친타월로 닦아 낸다.
- ③ ②의 프라이팬에 크레이프 반죽을 얇게 펴서 올린 뒤 앞뒤로 구워 낸다.
- ④ ③의 크레이프를 넓은 접시에 펼쳐 식힌다.
- ⑤ 충전재에 들어갈 복숭아는 껍질을 벗겨 과육을 깍둑썰기한다.
- ⑥ 생크림은 설탕을 넣고 단단한 뿔이 생길 때까지 휘핑한다.
- ⑦ ⑤와 ⑥의 재료를 섞어 충전재를 만든다.
- ⑧ ④의 크레이프에 ⑦의 충전재를 넣고 돌돌 말아 완성한다.

상식을 넓히는 소소한 잡학 모음

세상은 넓고 지식은 넘쳐난다.
그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있지만,
알면 좋고 몰라도 무방한 지식도 많다.
필수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모았다.

글 편집실

피부에 관한 잘못된 상식

따뜻한 물로 세안 후 찬물로 헹굴 경우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시원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게 좋다.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요하다. 어린아이들 역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주근깨와 잡티 등 각종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샤워기를 얼굴 피부에 갖다 댈 경우 높은 수압으로 인해 피부가 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없앤 명칭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황국신민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민학교의 명칭을 바꿔 1996년 3월 1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던 좌측통행 역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1일 우측통행으로 변경되었다.



호텔 등급 표시 방식 변천사

나라마다 호텔 등급 표시 형식이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다이아몬드, 유럽은 별로 등급을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특 1급, 특 2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무궁화로 표시를 해 왔었다. 2015년 기존의 무궁화 등급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지 않고 등급 결정 권한이 민간기관에 있기에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별 등급으로 전환하고 등급 결정 역시 한국관광공사로 단일화했다.



도심 속 휴식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2005년 10월 개관한 이래 국립중앙박물관은 도심 속에서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그리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역사의 한 조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여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보는 게 어떨까.

글 편집실 사진 노혜진



호수와 정원이 어우러진 멋들어진 조경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공간이 눈에 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소중히 여긴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 받아 호수와 정원이 어우러지게 설계를 했다. 호수 가운데 설 수 있는 정자와 곳곳에 존재하는 쉼 공간들 덕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기에 좋다. 박물관을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대나무 숲을 형상화한 오르막길이 있는데, 바람에 사각사각 스치는 대나무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전시

전시관의 유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해설사의 안내 시간을 이용하거나 자동 안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료 관람으로 진행되는 특별 전시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외국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8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황금문명 옐도라도> 전시가 시작되니 놓치지 말자.

30만㎡의 방대한 공간에 자리 잡은 수많은 유물

지하 1층, 지상 6층의 박물관 건물은 두 개의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듯이 이어져 있다. 건물 내부에는 경천사지심층석탑과 고달사 쌍사자 석등이 자리 잡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6개의 상설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기증관, 서화관, 아시아관, 조각·공예관으로 나뉘어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체 유물을 다 살펴보기에는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나누어 관람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의 천국

박물관 내부에는 다양한 휴게 공간과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서관 전시동에 위치한 푸드코트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동관 전시동의 경천사탑 뒤에 위치한 경천사탑 식당에서는 파스타를 비롯하여 경천사탑 비빔밥 등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박물관 중앙의 호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싶다면 거울못 식당을 찾아가 보자. 아름다운 경관과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으로 올라가기 전에 위치한 작은 식당 마당에는 버거, 핫도그, 디저트 등을 판매하여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즐기기에 좋다.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01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18.7월)
- 02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축소(26→5개, '18.7월)
- 0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20.1월)

시정기간을 연장하여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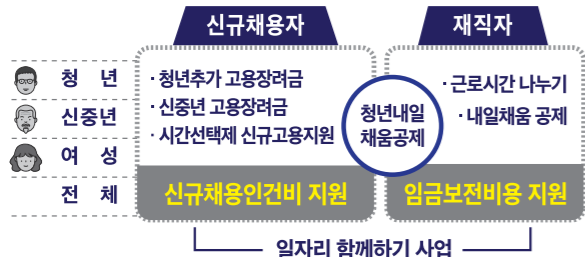
하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신규채용자 1명당 월 60~80만원(업종별 1~2년간)

재직자 •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감소액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업종별 1~2년간)

• 노동시간 6개월 이상 조기단축 사업장 우대지원
(신규지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다양한 지원제도 연계



청년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금
추가지원
(70%)

(신중년, 여성 채용의 경우에도
유사원칙 적용)

www.moel.go.kr

2018 일자리창출유공정부포상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찾습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8. 1 (수) ~ 2018. 8. 31 (금)까지

포상대상

부문	개인	단체
일자리 창출지원	① 민간기업 종사자 ② 공공기관 종사자 ③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④ 대학교수 및 연구자 ⑤ 공무원	① 민간기업 ②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③ 취업지원기관(민간위탁 포함) ④ 대학 및 연구기관
청년해외진출	① 해외 취업 ② 해외 인턴 ③ 해외 봉사 ④ 해외 창업	① 해외 취업 ② 해외 인턴 ③ 해외 봉사 ④ 해외 창업
장년고용촉진	① 민간기업 종사자 ②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① 민간기업 ② 취업지원기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① 공공부문 종사자 ② 대학교수 및 연구원 ③ 공무원	① 공공부문 각 기관

* 단체표창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

포상종류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 포상별 수급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년 이상

접수기관

- 일자리창출지원·장년고용촉진 부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지역협력부서)
- 청년해외진출 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총괄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지방고용노동청·지청(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국민추천제: 일자리창출,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에 크게 기여하신 솜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 가능한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제외).

* 접수처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홈페이지에서 서세국민추천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경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 포상 수여는 2018년 12월 중 예정(별도 공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5, 7233),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역협력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해외진출 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052-714-8606)으로 문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월간 <내일>이 함께 합니다.

웹진으로 <내일>을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을 웹진으로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 홈페이지(<http://labor21.com/>)에 접속하면 지난 호부터 최신 호까지 다양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와 함께 합니다. 알고 싶은 정책, 좋았던 기사, 기사 개선해야 하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 주세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7월호 퀴즈 정답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7월호 정답자

강상철(서울 서대문구)	김진홍(울산 울주군)	이영화(부산 서구)
권혁수(서울 노원구)	김창현(경남 김해시)	이훈(충남 논산시)
김진길(경남 양산시)	박금순(서울 광진구)	
김정화(전북 군산시)	박병헌(대구 남구)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8월호 퀴즈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하여 보내 주시거나 **월간 내일 웹진**(<http://www.labor21.com/>)에서 신청해 주세요. 익월부터 반영되어 소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www.labor21.com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나 보세요

일을 통한 행복을 알려 주는 고용노동부의 소식지 월간 <내일>
월간 <내일>에는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직원과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
알고 싶은 상식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Summer party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8. vol.520

보내는사람

성명 _____ (남 여)

주소 _____ 휴대폰(- -)

□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01.25 - 2019.01.24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my Work, my Tomorrow 2018. 8.

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신사동, 산도빌딩 5층)

하나로애드컴 월간 <내일> 편집실 앞

0	6	0	2	6
---	---	---	---	---

〈 Campaign Report 〉

1. 귀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이상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은?

- 유통 ·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 제약
 교육업
 건설업
 IT통신
 미디어디자인
 금융업

4. 귀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션은?

- 청년 정책
 여성 · 중장년 이야기
 기타 고용노동정책
 문화예술 정보

5.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6. 보충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종 다양화
 실패 사례
 관련 제도
 트렌드사업 정보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
에 표시해 주세요

● 8월호 독자퀴즈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 이번 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나 월간 〈내일〉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이곳에 풀을 칠해 주세요